장흥서 '관광산업포럼' 개최

우드랜드서 제7차 관광산업포럼 개최
겨울 전남 관광 매력 공감대 형성 마련

장흥군은 7일 우드랜드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제7차 관광산업포럼'이 열렸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전라남도, 전라남도관광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겨울철 전남 관광 매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내국인 해외 관광객은 3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 1월 개최된 2018 관광인 신년인사회에서도 내나라 먼저보기 캠페인 등을 추진,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우리 관광산업생태계를 성장 발전시키자는 결의를 한 바 있다.

같은 취지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문체부, 도 및 시군, 학계, 지역관광협회 및 관광업계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기후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 겨울여행 특성 파악을 통한 전남관광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한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도 진행됐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여행이라고 하면 강원도 스키여행과 얼음낚시, 또는 따뜻한 동남아 해외여행을 떠올린다.

한 온라인여행사 발표 자료에서는 다음 주 설날 제주도 등 국내여행 예약은 감소하고, 오히려 해외여행 예약은 전년대비 200% 늘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최저기온 영하 10도 이하 일수가 서울은 100일, 전남은 평균 14일로 수도권 주민의 피한 여행지로서 관광지 전남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포럼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전남의 겨울철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찾고, 널리 알려, 겨울철 국내여행 수요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흥필 기자

"완도산 전복, 이젠 손쉽게 드세요"

완도군, 낱개로 급냉동 살전복 택배 시범사업 추진

완도군과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는 활전복을 탈각해서 순살을 급속,동결시킨 후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복산업의 메카인 완도군이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와 함께 급냉동 살전복을 진공 포장해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택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새로 바뀐 김영란법 시행으로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활전복은 껍질에서 살을 분리할 때 손에 상처를 입기 쉽고, 남은 활전복은 다시 냉동보관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들이 전복을 손질하고 보관하기에 불편해 구입이 꺼려진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활전복에서 분리한 순살을 12개, 6개 등 낱개로 급속동결 포장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트랜드에 맞춰 상품을 개발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그동안 1차 산업에만 머무는 활 전복 소비시장은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개발과 소비시장 조성으로 활전복 소비촉진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이승열 회장은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이 10만원까지 가능해져서 전복생산 어업인들이 활기를 찾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품은 kg당 11~12미 크기의 활 전복을 탈각해 급속 동결 과정을 거친 살전복 5~6개 들어간 진공팩 2개와 전복내장 진공팩 1개로 구성한 99,000원짜리 선물세트로 구성했다.

완도군과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는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성을 분석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상품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 설 명절 대비 친절 캠페인 펼쳐

중앙로와 토요시장 일대서

장흥군은 어머니 품 같은 장흥 만들기 일환으로 '설명절 대비 손님맞이 친절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장흥장날인 지난 7일 오전 중앙로와 토요시장 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캠페인에는 장흥군 공직자와 새마을협의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장흥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남진 장흥 물축제 및 미라톤 대회, 통합의학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강화로 다시 찾고 싶은 장흥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친절하게 인사하기, 환하게 웃기, 고운 말 쓰기 등 미소와 친절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행사에 참여한 위삼섭 장흥군 부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새마을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군민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장흥을 만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다시 찾고 싶은 친절한 장흥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민관 협조를 통한 캠페인 및 공직자 친절교육, 음식점 청결운동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장흥=김흥필 기자

㈜진도군친환경, 사랑의 쌀 271가마 기탁

이덕환 대표 "마을 경로당에 모여 따뜻하게 식사 할 수 있었으면"

농업회사법인 ㈜진도군친환경(대표 이덕환)이 700만원 상당의 쌀 271가마를 진도군에 지정 기탁했다.

이덕환 대표는 경로당에 진도군 전체 271개 경로당에 친환경 쌀 전달로 설 명절을 앞두고 나눔 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기탁했다.

특히 매년 정기적인 기탁으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정감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이덕환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관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마을 경로당에 함께 모여서 따뜻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관계자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탁에 앞장선 ㈜진도군친환경 회사측에 감사드린다"며 "훈훈한 기탁자들의 관심이 진도군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여수시, 어린이 시설 통학차량 LPG 차량 교체시 '보조금' 지급

여수시가 어린이 시설의 노후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규모는 총 10대로 사업비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현재 어린이 시설 통학차량으로 이용 중인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15인승 이하)이다.

소유자가 대상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 목적으로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까지며 시 기후환경과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공립시설 직영 차량이나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제외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생산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여수시, 도심텃밭 가꿀 가족 선착순 모집

150가족…12일부터 신청

여수시가 여천역 인근 농경지에서 텃밭을 가꿀 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150가족으로 오는 12일부터 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포털(http://ok.yeosu.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족들은 3만 원의 참가비만 부담하면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수확까지 할 수 있다.

시는 우선 가족들에게 재배요령 등을 교육한 후 4월 치커리·공심채 등 쌈채소 종자와 방울토마토·고추 등 열매채소 모종을 배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도 150가족이 도심텃밭에서 가족과 함께 채소를 재배했다.

시 관계자는 "가족텃밭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친환경 농산물을 기르고 수확하며 친밀감을 다질 수 있어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